생활가전社 "을사년 경영 키워드 '혁신·성장·인재·글로벌"

코웨이 방준혁 의장 "'NEW COWAY' 전략 가속화"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제2 창업 한다는 각오로 노력"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 "글로벌 시장 적극 공략할 것"

SK매직 김완성 대표 "수펙스 정신 무장하고 역량 결집"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 생활가전사들이 2025년을 맞아 '혁 신'과 '성장'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기업은 올해가 어느때보다 도 심각한 보릿고개가 될 것을 우려하 며 '사람'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일 개별기업들의 신년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코웨이는 올해 이례적으로 대주주인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사진)이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방준혁 의장은 코웨이 시무식에서 "2020년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후



넷마블·코웨이 의장

'NEW COWAY' 전략 일환으로 ▲혁

신 제품개발 ▲비렉스 등으로의 신사업

확장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글로벌시장경쟁력 강화 등의 혁신적

시도들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

다"면서 "올해는 이런 기조와 방향성에

스피드를 더욱 가속화해 성장세를 이어

코웨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올해부터

코웨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원그룹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부분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나갈

주주환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

가 달라"고 주문했다.

획도 밝혔다.

것"이라고 전했다.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정휘동 청호그룹 회장



김완성 SK매직 대표

다. 1985년 교원그룹의 모태가 된 ㈜교 원을 창립한 장평순 회장은 을사년 새해 를 맞아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비 약적인 성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토, 전 가정에서 그룹의 주요 사업부분을 중심으로 한 '에듀(EDU)화', '구몬화', '웰스(Wells)화'를 통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성장을 하자고 독려했다.

장 회장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사람들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막강한 인력을 갖추고 전성기 우리 회사처럼 열심히 노력해 전설적인 기록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

정기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 계정수를 기록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에선 창사 이후 최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순항했다. 유럽에선 자체 브랜드도 설립했다.

청호그룹정휘동회장은올해주인의 식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자세와 글로 벌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 등을 주문 했다.

정 회장은 "각자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고, 조 직 내 열린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나의 잘못부터 찾아 달라는' 자세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네 트워크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을 더욱 적극 공략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정 회장은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혁 신적인 제품과 로열티 서비스를 통해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SK매직은 지난해 'AI 웰니스 플랫폼(Wellness Platform) 회사'를 지향하며 적자 심화 가전사업 정리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영업 관리 체계고도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했다.

김완성 SK매직 대표(사진)는 "올해는 'AI 웰니스 플랫폼회사'라는 비전하에 '1등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줘야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SK매직 전 구성원이 패기와 VWBE (자발적·의욕적 두뇌 활용)를 통한 '수 펙스(SUPEX) 정신'으로 재무장하고역량을 결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장기대를 넘어선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경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나선다

소진공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류진 회장 "성장사다리 복원 힘쓸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이 손을 잡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류진 회장과 박 성효 소진공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 화 및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한경협은냉랭한내수경기상황에따 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기운을 북돋는 '온기(On氣) 캠페인'을 회원사와 경제계에 확산해나간다는 계 획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과 박성효 소 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F KI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경협

류진 한경협 회장은 "최근 경제·사 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소상공인들 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 한경협 첫 사업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결정했다"면서 "소진공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약체결 후류진 회장, 박성효이사 장은 양측 관계자들과 영등포구 대림 동에 있는 우리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우리시장에서 신 선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 하는 등 소상공인 경기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비데·공청기 등 'CES 혁신상' 3관왕

기술력, 혁신성 인정 받아

코웨이가세계최대정보기술(IT)·가 전전시회 'CES 2025'을 앞두고 발표한 'CES 혁신상'에서 3관왕에 오르며 기 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 시간) 공개한 CES 2025 혁신상에서 ▲ 디지털 헬스케어 비데 ▲자동 필터 클 리닝 공기청정기 ▲개인 공간 맞춤형 공기청정기 등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 상했다.

홈어플라이언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데'는 클리 닝 기능을 넘어 비데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기 반으로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 제 품이다.

'자동 필터 클리닝 공기청정기'는 필 터 청소와 교체가 필요 없는 셀프 클리 닝 기술을 탑재한 제품으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지속가능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개인 공간 맞춤형 공기청정기'는 인 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간에 최적 화된 에어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 으로 스마트홈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 해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 2016년에 CES 혁신상을 처음 수상한 이후 올해까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스마트매트 리스. 안마베드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28개의 혁신상을 받으며 선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승호기자

팅크웨어, 아이나비 '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부문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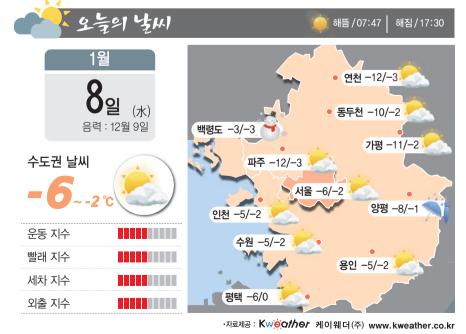
팅크웨어가 한국소비자포럼 주관의 '2025퍼스트브랜드대상'에서 내비게이 션 부문 21년 연속, 블랙박스 부문 13년 연속 1위로 '아이나비'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7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블랙박스 부 문에서 13년 연속 선정된 '아이나비'는 고객 중심의 선도적인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도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비전 A.I 블랙박스, '아 이나비 QXD1 PLUS'를 출시하며 시 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이나비 QXD1 플러스'는 50만 건 이상의 주행 데이터 를 딥 러닝으로 학습해 기존보다 정확 하게 객체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촬영한다.

내비게이션 부문에선 21년 연속 1위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입지를 굳게 다졌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은 팅크웨어의 28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극대화한 증강현실 솔루션과 보행자 인식 솔루션 등새로운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 (ADAS)으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김송호 기자



■ 메트로 ∰ 한줄뉴스

- ▲ 中 티베트 지진으로 에베레스트산 등반로 일시 폐쇄
- ▲ 티베트 강진 사망자 53명… 피해 더 늘어날 듯 /사진 뉴시스
- ▲ 한국, 아시아 최초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EU "합류 환영"
- ▲ 도요타 "로켓 연구 중"…스타트업에 70억엔 투자도
- ▲ "인니, 브릭스 정회원국 가입"··· 중국도 "환 역"
- ▲ 中 연예인 태국·미얀마 접경지역서 실종… 납 치 추정